|  |
| --- |
| **보도자료 –차바이오텍**  **홍보본부 |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** |

배포일 : 2025년 5월 14일

|  |
| --- |
| **차바이오텍, 1분기 연결매출 전년동기 대비 31% 상승**   * **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매출 확대** * **별도기준 매출액, 국내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으로 전년 대비 19% 증가** |

차바이오텍(085660)은 2025년 1분기결산 실적을 14일 공시했다.

연결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액은 3,041억원으로,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싱가포르 SMG(Singapore Medical Group) 연결 편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0% 이상 증가했다.

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125억원 손실로 차바이오텍과 CMG제약, 차백신연구소 등의 R&D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와 美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(Matica Biotechnology Inc.,)의 적자 축소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다.

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148억원으로 유전체 분석, 면역세포 및 줄기세포 보관, 헬스케어 IT 사업 등의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년 대비 19% 증가했다.

별도재무제표 영업이익은 4백만원 손실로,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 확대 등 R&D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, 사업 부문의 매출 증대로 손익분기점 수준을 유지했다.

차바이오텍은 지난 3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석윤 전 골드만삭스 한국대표를 부회장으로 영입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. 내부 조직과 계열사 관리, 미국 병원 경영 효율화, 일본 및 아시아 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위해 박번 사장, 김창욱 대표, 한기원 사장을 기용했다.

차바이오텍은 신임 경영진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영구조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, 6월 유상증자를 순조롭게 마무리하여, 남수연 R&D 총괄사장을 필두로 신규 신약 후보물질의 확보와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가속화를 통해 본격적인 R&D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 (끝)

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[연결기준, 단위: 억원]** | |  | |  | |  | |
| **구분** | **2025. 1Q** | | **2024. 1Q** | | **YoY** | | **비고** |
| 매출 | 3,041 | | 2,324 | | 717 | | + 31 % |
| 영업이익 | -125 | | -126 | | 1 | | 적자 지속 |
| 당기순이익 | -270 | | -162 | | -108 | | 적자 지속 |

**[별도기준, 단위: 억원]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구분** | **2025. 1Q** | **2024. 1Q** | **YoY** | **비고** |
| 매출 | 148 | 125 | 24 | + 19 % |
| 영업이익 | 0 (-4백만원) | 1 | -1 | 적자 전환 |
| 당기순이익 | -32 | 16 | -48 | 적자 전환 |